

Art & Cultural Incheon Magazine
예술인천 Vol.37

The conceptions of
Dopharming(도파밍)

예술인천 후원기관
Sustainable Korea
재단법인 승국문화재단

www.artin.or.kr
9 772799312008
ISSN 2799-3124

37

Art & Cultural Incheon Magazine

예술인천 Vol.37

The conceptions of
Dopharming(도파밍)

2024 Vol.37 예술인천



인천예총

 FACO | 인천예총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파민(Dopamine)이라는 단어는 얼핏 어디선가 들어보기도 했고, 요즘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 다룬 “Dopharming(도파밍)”의 어원의 근원은, 호르몬 작용의 도파민(Dopamine)과 능동적 행동 및 행위의 파밍(Farming)이 만난 합성 신조어이다. 그 의미는 자극(행복·희열·재미·기쁨·슬픔 등)으로 인해 오는 감정을 본인 스스로가 능동적 행동을 취하여 쟁취하는 일련의 과정 자체를 말하고 있다.

예술가는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작품에 담아내거나, 작품을 만드는 행동 자체에서 도파밍을 한다. 반면, 일상의 우리들은 그 작품을 보러가거나 작품을 봄으로서 느끼는 많은 감정들에서 깨우침을 얻고자 한다. 결국 예술가도, 일상의 우리들도 어떤 주체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알고자 하는 욕구가 기반이 되어 도파밍이라는 단어가 생성된 것이 아닌가싶다.

물론 지나친 쾌락, 우울, 재미만을 염두에 두어 도파밍 행위가 절대 옳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인 스스로 본인을 제어할 수 있는 선에서의 행복을 찾아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김용호 작가의 “시선” 작품은,
다소 복잡한 주체와 구조물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휘어진 전봇대, 안내 표지판, 여자 얼굴의 벽화, 다양한 물체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하듯 성향이 다른 물체들이 모여 하나의 재미있는 작품으로 탄생하였다.

이번 예술인천 37호에서는 예술가들의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보는 도파밍을 알아보고, 독자들 또한 자신만의 도파밍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아티스트

Kwon, Jeongsoon

권정순



전시경력 개인전 2회 - 캠코갤러리(2022), 채움갤러리(2015)
부스전 5회 - 인천코리아아트페스티벌(인천송도컨벤시아, 2022)
인천국제아트페어(인천송도컨벤시아, 2018)
인천국제아트페어(인천문화예술회관, 2017)
브랑블루호텔아트페어전(서울엠베서더호텔, 2014)
KASF부스전(서울무역센터, 2013)

주요전시 인천미술협회전(2014~2023)
인천수채화협회전(2015~2022)
인천현대수채화제전(2017~2024)
한국미술협회전(2015~2017)
아라회전(2011~2024)
이형회전(2021~2023) 외 단체전 다수

수상 제41회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 입선(2022)
전국공모인천미술대전 우수상(2020), 특선(2021), 입선 3회(2018, 2022, 2023)
대한민국수채화작가협회공모대전 우수상 2회(2018, 2020), 예총상(2023)
안건사랑 전국미술대전 입선 2회(2017, 2018)
한국수채화공모대전 입선(2019)

현재 아라회 회장
인천미술협회, 인천수채화협회, 한국미술협회, 이형회, 대한민국수채화작가협회 회원

딩가딩가

사이즈 확인 ??×??cm, Acrylic on canvas





아티스트

Kim, Junghee

김정희



동덕여자대학 회화과 졸업
개인전 14회, 단체전 및 초대전 300회

한국미술협회 인천지회 이사·감사, 인천미술협회 이사 역임
인천광역시 초대작가 부이사장, 천중구문화예술인협회 사무국장 역임
인천미술대전 운영위원, 인천중구 건축물 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인천국제미술전람회 심사위원장, 관광기념품 공모전 심사위원 역임
인천광역시 중구민주평통 문화분과 위원장 역임
창선고등학교 미술교사 역임
인천중구여성회관 관장, 중구문화원 이사 역임

수상 인천광역시 종구 구민상 (문화예술 부분) 종구청장상
인천여성미술인상 수상 (인천시장상, 제470호)
감사장(서울특별시의회윤리위원장,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제61호)
인천 가정의 달 이웃사랑 표창 (인천시장상, 제 1122호)
표창장 - 여성의 권리 향상과 인권 보호(종구청장상, 제116호)
표창장(봉사 정신 애향심, 국회의원상, 제2012-101호 · 제2022-333호)

시집 혼자머문자리 출간(참글사, 1996), 아름다운 산책 출간(종구청)
시화집 벌간 세상에 단 하나뿐인 - 마음을 싣다(지도강사, 중구문화원)
그림책 벌간 우리마을 인천개항장 스케치(지도강사, 신흥여자중학교, 2021)

현재 인천미술협회 고문, 인천원로작가회 사무국장, 인천광역시 초대작가
인천광역시 종구체육회 자문위원
인천광역시 미술협회, 인천여성한국화회 회원
인천중구 공감문화센터 강사

| 나무이야기-관계

38×32cm, Acrylic on canvas



아티스트

Du, Rumi

두루미



개인전 7회, 부스전 2회

초대전 및 국내외 단체전 190여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국수채화공모대전 심사위원 역임

수상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부문수채화 입선 3회

한국수채화공모대전 특선 및 입선 6회

한국수채화아카데미 특선

대한민국현대여성미술대전 입선

대한민국수채화대전 특선, 가작, 입선 2회

현재 한국미협 수채화분과 이사, 한국수채화협회 이사

인천미술협회, 대한민국회화제 회원

인천수채화협회 부회장, 인천미협 사생작가회 회원

du아뜰리에



어미의 사랑

20호(60.6×72.7cm), Watercolor



Du, Rumi 2023



아티스트

Lee, Doyoung

이도영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전공학사
개인전과 아트페어포함 3회, 단체전 다수

수상 2024 한석봉서예미술대전 우수상
2024 Gallery4% Distinction in “LINING & BREATHING 3”
2024 IAA Special Artist Award 등 다수수상

현재 한국미술협회, 인천미술협회, 인천사생작가회
남동구문화예술회, 재인홍익동문화회 홍의루트
국제현대예술협회 회원, 홍익미술인천지회장(회화부문)

말발바닥 소발바닥

10호(45.5×53.0cm), Acrylic on canvas

아티스트

Ha, Kyoungok

하경옥



전시경력 개인전 13회

부스전 및 아트페어 150여회, 단체전 200여회

2024 서인천고 청파갤러리

2024 가드너스갤러리

2023 안젤리 미술관 우수작가 선정

2023 서구문화재단 사람, 꽃, 그리고 집 기획전시

2023 미술관이음 찾아가는 미술관 선정작가

2023 반포대로5 갤러리 초대개인전

2023 문화재단 아트페어 활성화공모 선정작가

공공프로젝트 서구를 담은 예술, 예술을 담은 서구 참여

소장 인주초등학교, 청라성당, 김정숙갤러리, K갤러리

현재 한국미협, 인천미협, 한국창조미협, 환경미협, 전업작가회

인천서구문화예술인회, 서구미술협회, 인천여성비엔날레 회원



@HAKYOUNGOK2

행복한 이야기

53.0×53.0cm, Acrylic on canvas





포토그래퍼

Kang, Junhee

강준희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지회 회원

포토그래퍼

Sung, Kihyung

성기형



사진예술지도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인천시민공원사진가 활동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지회 회원





© 임자도 여명

포토그래퍼

Kang, Junhee

강준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대한민국 사진대전 추천작가

인천광역시 사진대전 초대작가(전국 심사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촬영지도위원회 부위원장

인천시 시민공원사진가 지도작가

인천사진동호회 회장

[사진집 발행]

도화동이야기(2023)

행복의 공간 속으로(2021)

자연에 묻다(2021)

숲속의 유혹(2020)

공원의 속삭임(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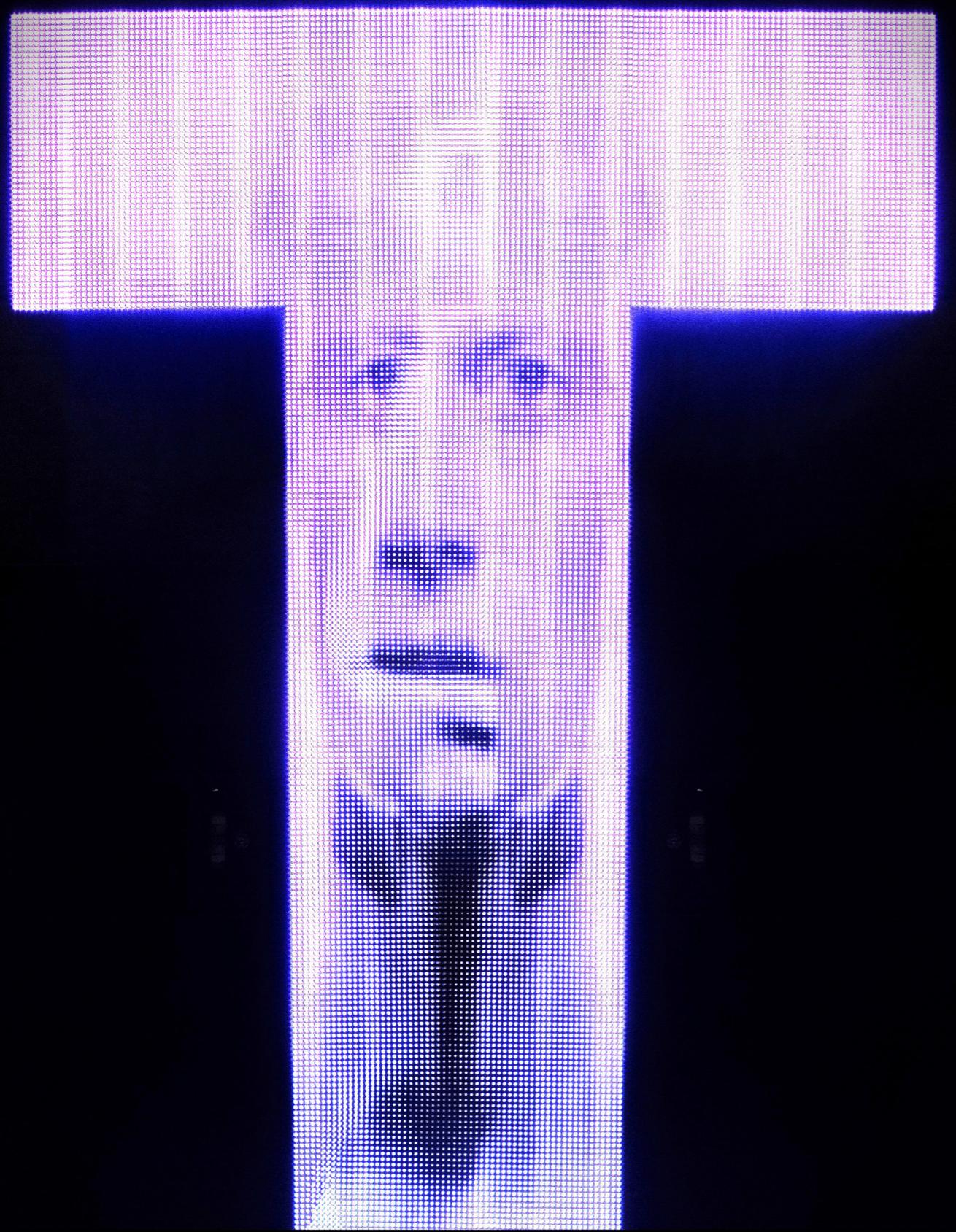
포토그래퍼
Lee, Sukho
이석호



제물포사진대전 특선(2021)
국제환경사진동아리 지도고문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지회 회원

© 혼돈





포토그래퍼

Lee, Yeonhwa

이연화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지회 회원

소설가, 현대문학가

Guja, Inhye

구자인혜



2008년 월간문학에서 소설『어머니의 정원』으로 등단

소설집『돌을 깨우다』,『은합을 열다』

산문집『낯선 것에 능숙해지기』, 소설 공저집『별다방의 물락』,『인천, 소설을 낳다』와 다수

2008년『어머니의 정원』동서문학상 소설부분 금상

—

10편의 단편으로 구성된 구자인혜의 『은합을 열다』는 ‘동서문학상’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는 소설가 구자인혜의 첫 번째 소설집으로 인천문화재단의 창작 지원금을 받은 작품이다. 『은합을 열다』를 대표작으로 하고 있는 이 소설집은 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때로는 한 집안의 가장이, 때로는 사회에 편입되기 위해 분투하는 한 여성의 주인공이다.

‘은합을 열다’는 천 년 동안 담혀 있던 비밀의 사리함의 진위를 둘러싼 사건을 유물 발굴 건축가의 시선과 어렸을 때 해외로 입양되었다 부모를 찾아 온 한 젊은 여성의 시각과 교차된다. ‘표본 만드는 여자’는 첫사랑과 불의의 사고로 헤어지고 그 마음의 상처가 이끈 결혼생활의 파행을 겪어가는 여성을 다룬다. ‘클라리넷’에는 불임을 겪고 있는 여성과 그녀의 육체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신적인 문제까지 개입하게 되는 산부인과 의사가, ‘어머니의 정원’에서는 지나간 시대를 사는 어머니와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편이, 또 ‘숨비소리’에서는 유부남 남자친구와 떠난 해외여행에서 남자가 떠나간 후 혼자 남아 제주도 해녀인 어머니에게서 배운 숨비소리를 길거리에서 연주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지나간 시간을 다스리고 지금의 시간을 견뎌내며 서로 다른 방법으로

남은 길을 가야 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위로이자 응원”이라고 평한 방현석 소설가의 말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겪고,

영원한 이별을 맛본 이들의 일상에 깃든 도무지 아물지 않는 상처를 어루만지는 소설

인천문화재단 창작 기금 수상작 /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금상 수상작 수록

은합을 열다

인천문화재단 창작 기금 수상작/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금상 수상작 수록



은합을 열다

구자인혜 소설집



“부증불감이라고 했던가. 실제로는 없어지는 것도 없고 늘어나는 것도 없다 했다.
마음에서 무엇인가 상이 나타나면 새로운 상이 따라 나오고
조금 전 마음은 자취를 감췄다. 모두 어디에서 나와 어디로 사라지는 건가.
그것들이 횡으로 종으로 이어진 세계는 어떤 세계이며 나와는 어떻게 연결될까.”

- 본문 중에서

인사이트브리즈

은합을 열다 | 148×210mm | 264p | 12,000원 | 인사이트브리즈 2016

류인채 시집 흑두루미 날다

류인채 시집

흑두루미 날다

갈대밭에서 숨 고르던 수천 마리의 흑두루미 떼가
오후 다섯 시를 끌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시작시인선 0493

흑두루미 날다 | 128x208mm | 120p | 11,000원 | 천년의 시작 2023

갈대밭에서 숨 고르던 수천 마리의 흑두루미 떼가 오후 다섯 시를 끌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발목이 간지러운 갈대들이 잎을 뾰족이 세우고 휘청거린다

저 새들, 어느 행성에서 날아온 누구일까

— 류인채 시, ‘흑두루미 날다’ 중

시인, 현대문학가

Lee, Sukho

류인채



충남 청양 출생.

인천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음.

2014년 「돌의 날개」 등 5편의 시로 제5회 『문학청춘』 신인상, 2017년 시 「돋보기」로 제9회 『국민일보』 신춘문예 대상 당선.

시집 『나는 가시연꽃이 그립다』(1998), 『소리의 거처』(2014), 『거북이의 처세술』(2016), 『계절의 끝에 선 피에타』(2019),

『흑두루미 날다』(2023), 시문학 연구서 『정지용과 백석의 시적 언술—한국 현대시 창작 지침서』(2023) 출간.

2013년 인천예총 예술공로상, 2014년 인천문학상 수상.

경인교육대학교, 성결대학교 외래교수, 『학산문학』『인천문단』 편집 위원.

류인채 시인은 친식물성 시인이다. 식물을 형상화하는 감각이 아름답다. 흰 꽃이 무더기로 피는 이팝나무를 순간의 구름에서 끊어 앓다는 상상, 또 풍만하고 눈부신 새틴 소재로 비유하여 웨딩드레스를 만들었다는 상상이 아름답고 풍요롭다. 화사한 열레지꽃이 바람둥이 어린년으로 비유되고, 길거리 한복판에 있는 꽃의 이파리가 얼룩덜룩 몽 자국같이 보이는 것을 집단 구타당한 것으로 의외적 상상을 한다. 묘사와 진술, 열거와 인유가 빛난다. 시집에는 풀과 꽃과 나무 등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상당수 언급된다.

표제시 「흑두루미 날다」는 묘사와 진술이 절정을 이루는 역작이다. 서쪽 하늘로 기우는 해가 마침표를 붉게 찍는다는 시각적 심상이 인상적이다. 갈대밭에서 수천 마리의 흑두루미 떼가 “오후 다섯 시를 끌고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표현이 장엄하다. “발목이 간지러운 갈대들이 잎을 뾰족이 세우고 휘청거린다”는 진술이 섬세하다. 오래 다물었던 입이 한꺼번에 터지듯 울음소리가 공중에서 울려 퍼지는 합창은 응장하다. 새 울음소리를 묘사한 의성어가 청각적 울림을 준다. 흑두루미 떼들의 군무는 하늘을 덮고, 노을을 배경으로 점묘화를 그린다. 갈대들이 방죽에 서서 오도 가도 못한다는 묘사와 진술도 일품이다. 하늘 끝까지 날아갈 듯한 새 떼를 따라가고 싶어서인지 화자의 겨드랑이가 간지럽다는 상상력도 기발하다. 문인에게 고향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 최근 류 시인은 성장기에 경험한 농경사회와 도시 생활, 그리고 다시 시골에 나려가 부딪히게 된 격세지감의 낯선 제재를 통해 새로운 시 세계를 구축하는 중이다. 많은 독자가 류인채 시인의 시를 만나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 공광규 (시인)

수필가, 현대문학가
Guja, Inhye

배천분



2000년 『문예비전』 수필부문 신인상 수상.

『그녀를 쫓아가는 봄빛』, 『등 뒤의 사람』, 『나에게 묻는다』 수필집 발간

제18회 인천예총 문학부문 공로상 수상, 제29회 인천예총 문학부문 예술상 수상.

부평사람들 취재기자. 인천in 시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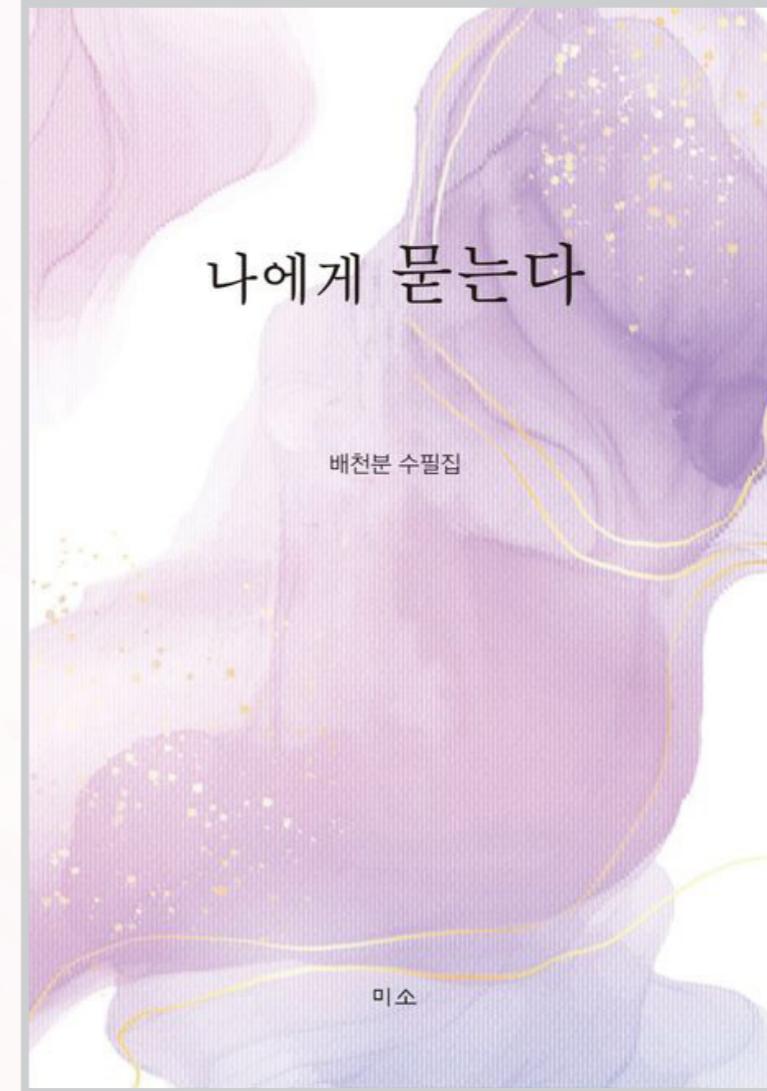
배천분의 이번 수필집 『나에게 묻는다』는 연민과 애정으로 직조된 훈훈한 정감의 세계를 보여준다. 그의 수필 소재들은 아주 소소한 일상체험이에피소트에 불과한 것들이지만, 그 후정(後情)의 숨결은 매우 질박하고 생명적이다. 작품마다 독백적 체험이 빛어낸 구체적이고 섬세한 예증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반추할 수 있고 서사적 인생론의 맛깔스런 재미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문광영 (문학평론가, 경인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수필을 읽으며 어떤 남자인지 아내 침 잘 만났다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어떤 아이들인지 엄마 한 번 잘 만났다는 생각도 하였다. 남편에게나 아이들에게나 동생에게나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니 집안 분위기가 늘 화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글 전체에 두루 퍼져있는 긍정마인드는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전염되어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 구경분 (아동문학가)

삶의 경험 글로 생명 불어넣다 — 배천분 수필집 나에게 묻는다



아들은 복도 많다. 무려 7살이나 어린 여자 친구와 연애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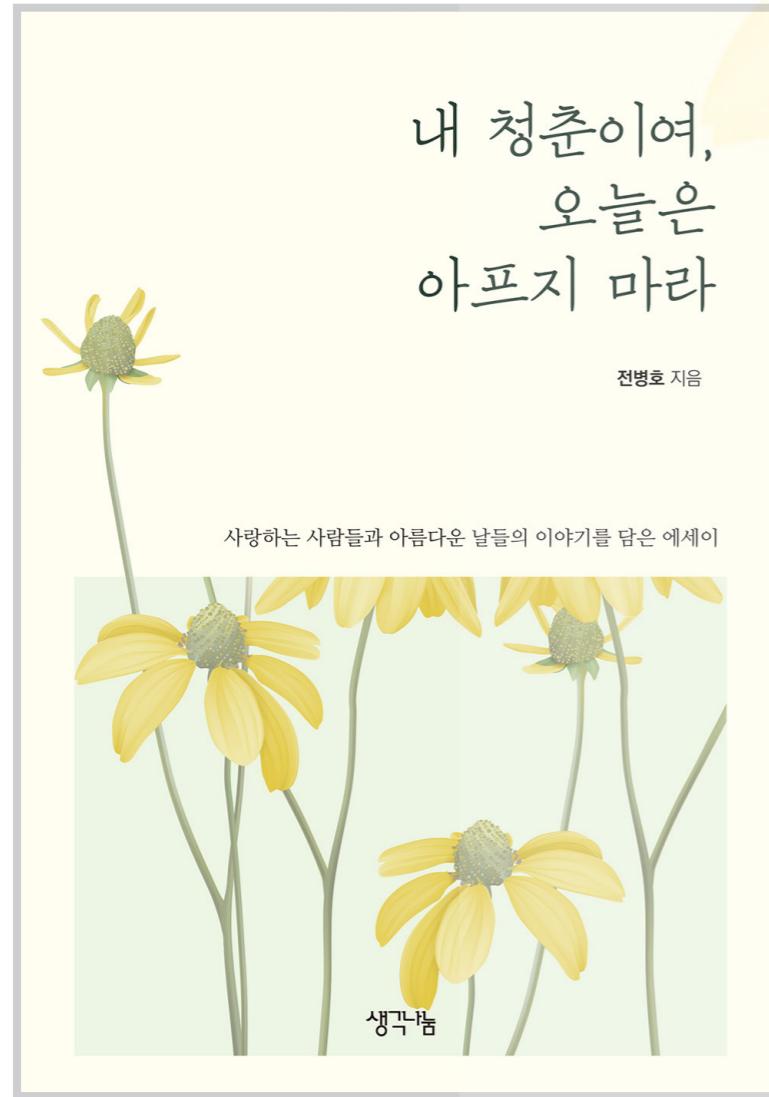
예비 며느릿감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아들과 옆에 제대로 연애 한 번 못하고 발목을 잡힌 것이다.

나이도 어린데 속이 깊다고나 할까? 난 편하게 생각하는데 시댁이라 생각해서인지 늘 조심스러워 하는 눈치다.

— 류인채 시, '빼앗긴 보물' 中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날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병호 에세이

내 청춘이여, 오늘은 아프지 마라



내 청춘이여, 오늘은 아프지 마라 | 149×210mm | 208p | 16,500원 | 생각나눔 2024

사랑스런 나의 당신! 아프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웃을 일 많고 좋은 친구들 많아요.

아프지 마세요. 우리 함께 위로해 주고 우리 함께 위로 받아요.

사랑스런 당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팔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우리 함께 걸어요. 걷다보면 우리들의 봄날이 올 거예요.

— 전병호 에세이, ‘내 청춘이여, 오늘은 아프지 마라’ 본문 중

시인, 수필가
Lee, Sukho
전병호



1966년 전북 장수 출생

제15회 전국공무원문예대전 대상(詩-로드킬) 대통령상 수상, 동화(은상) 행안부장관상 수상

제12회 전국공무원문예대전 동화(장려상) 행안부장관상 수상

제7회, 12회 경찰문화대전 詩 경찰청장상 2회 수상

제75주년 경찰의날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

2003년 한맥문학 시, 수필 등단

현재, 인천문인협회회원(이사 역임), 인천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장(경정)

저서 :『엄마의 일기장』, 『내 청춘이여, 오늘은 아프지 마라』

인생은 아프거나 즐거움의 연속이다. 삶에 있어 즐거움보다는 아픔이 더 강렬하다. 저자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다. 아픔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글을 쓰고, 그 글을 통하여 스스로 위안을 받았다. 이제는 어떠한 아픔이 찾아온다 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나 혼자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내용으로, 아픔을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결국 나에 대한 아픔이고, 나에 대한 위로의 글이다. 그 아픔을 나만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나약한 마음을 단단하게 단련해나가는 형식의 글이다.

글 내용 중에 ‘나에게 전하는 인사’와 ‘사랑하는 아들아’ 편지글 형식도 결국은 독자가 아닌 나에 대한 위로의 글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라면 ‘나’에 포함된다. ‘나’는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세상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는 사람 있을까. 목표가 큰 젊은이들, 갈 길이 먼 청년들,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실패와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설정된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글을 추천하고 싶다.

저자의 책(글)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 아픔을 위로받을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수필가, 현대문학가

Guja, Inhye

지설완



1998년『수필과 비평』등단.

인천문인협회수필분과 회원

〈수필과비평작가회의회원〉, 〈수비경인지부〉회원

『에세이포레』문학회 회원, 『에세이포레』운영이사.

저서: 수필집《술꾼의 남편》

영혼의 미세한 풍경, 섬세와 기하학적 정신의 융합

작가 지설완의 수필집《술꾼의 남편》의 책문을 연다. 제호가 사뭇 해학적이다. 등단작품을 제호로 정한 작가 정신이 돋보인다. 통상적인 ‘술꾼의 부인’이 아니다. 반어적이고 역행적인 언어의 기표가 갖는 언표장의 의미는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작가 정신이겠다. ‘술꾼의 남편’, ‘순간의 선택’, ‘골목 콘서트’, ‘필화사건’, ‘히에라폴리스의 유령들’이란 작은 표제들이 눈에 들어온다. 총 48편의 수필이 포진해 있는 작가의 성채城砦가《술꾼의 남편》이다. 이들 작품들은 대체로 전통적 문법에 수필의 역행성을 융합한 작품들이다. 작가의 문력으로 보면 전반기에 속하는 작품들이겠다. 코로나시대를 통과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메타언어적 층리를 보여주는 존재 인식의 후반기 수필들이 이 수필집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은 아마도 내일에 대한 예비이지 싶다.

— 한상렬(문학평론가)



삶의 경험 글로 생명 불어넣다—지설완 수필집 술꾼의 남편

영혼의 위로와
치유를 위한 콘서트

술꾼의 남편

지설완 수필집



수필과비평사

술꾼의 남편 | 147×201mm | 285p | 16,000원 | 수필과비평사 2024

아들은 복도 많다. 무려 7살이나 어린 여자 친구와 연애 중이다.

예비 며느릿감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아들과 엎여 제대로 연애 한 번 못하고 발목을 잡힌 것이다.

나이도 어린데 속이 깊다고나 할까? 난 편하게 생각하는데 시댁이라 생각해서인지 늘 조심스러워 하는 눈치다.

— 류인채 시, ‘빼앗긴 보물’ 中

도파밍 뿐뿐, 골목길 풍경

글·사진 / 유동현(전, 인천시립박물관장)



“도파민 돋다” 요즘 젊은이들의 일상이다. “재미있다” “흥미롭다” “기분, 급 좋아진다”는 의미다. 비록 젊은 층에 끼지는 못하지만 그 뜻을 열추 알고 있다. 그런데 ‘도파밍’은 오타인 줄 알았다. 『예술인천』 원고 청탁을 받은 덕분에 도파밍이 도파민(dopamine)과 패밍(farming)을 합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파밍의 대표적인 유형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재미’다. 이런 의미라면 나의 골목길 탐험은 도파밍이 틀림없다. 지난 20년 동안 인천 골목길을 수없이 걸었다. ‘인천에 의미 없는 골목은 없다. 인천에 아름답지 않은 골목은 없다’는 독백을 하며 쏘다녔다.

골목 풍경은 정형화돼 있지 않다. 봄, 겨울은 물론 비 오는 수요일, 눈 내린 토요일 골목이 다 다르다. 아침 햇살에 비친 골목 어귀, 저녁노을에 물든 뒷골목 등이 변화무쌍하게 다가온다. 우연히 들어간 골목 안에서 무릎을 치게 만드는 기가 막힌 오브제들을 심심치 않게 마주했다. 무심코 집 앞에 내놓은 잡동사니들이 유니크한 설치미술품이 되기도 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광경을 기대하며 오늘도 구불구불 이어진 골목길에 접어들고 있다.

당신은 잠들어도, 그놈은 보고 있다

요즘 골목마다 CCTV가 촘촘히 설치돼 있다. 그런데 사각(死角)이 있다. 우리 집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일본식 주택이라 창문도 유난히 크다. 누군가 자꾸 들여다보는 것 같다. 창문에 사진을 오려 붙였다. 이 친구는 24시간 잠들지 않는다. 눈 한번 깜박거리지 않는다. 이제 발 뻗고 자자.

— 동구 만석동 사택골목

무모한 도전이 주는 웃음과 짜릿함도 도파밍이다. 무한 도전으로 시작해 무모한 도전으로 끝난 해프닝이 있었다. 평소에 봐둔 곳이 있었다. 동인천역 부근 오래된 한 동짜리 10층 아파트 옥상이었다. 그곳에서 동인천역 일대를 와이드로 찍고 싶었다. 어느 늦은 오후에 ‘즉흥적’으로 올랐다.

너른 옥상에는 고추와 빨래가 널려 있었다. 살금살금 몰래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작업을 끝낸 후 서둘러 내려가려고 했는데 아뿔싸. 옥상 문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조금 전 빨래를 걷어서 내려간 아줌마가 안에서 걸어 잠근 것이었다. 바로 어두워졌다. 전화로 친구를 불러 옥상 문을 열어달라고 할까, 아니면 119로 연락할까. 까짓것 옥상에서 하룻밤 풍찬노숙을 할까. 별생각이 다 들었다.

더듬어 보니 옥상 문 옆쪽으로 조그마한 창이나 있었다. 밀어보니 열렸다. 창틀이 너무 작은 게 문제였다. 양쪽 창문을 들어내 빼고 몸을 심하게 구겨 넣었다. 거꾸로 처박혀 아크로바트 하듯 해서 겨우 탈출했다. 사진 한 장 건지기 위한 웃픈 몸부림이었다. 그래도 도파밍 뿐뿐이었다.

빨래판의 인생 2막 시작

재개발이 확정되면 여기저기 빙집이 생긴다. 이후부터는 화재, 범죄 등 안전 문제에 신경이 곤두선다. 골목길 순찰도 돌고 빙집 출입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빙집 대문마다 잠금장치를 한다. 이 집은 자물쇠를 걸어둘 고리가 마땅치 않다. 고민되네. 그래 방법은 이거다. 마당에 굴러다니는 빨래판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철벽 빗장이 되었다.

— 동구 창영동 금송재개발구역





생존과 본능이 주렁주렁

8월 중순이면 인천 동네 곳곳에 주단(朱丹)이 길게 깔린다. 경쟁하듯 고추를 말린다. 인천 사람들의 고추 말리는 좀 유난스럽다. 왜 그럴까. 피난민이 많이 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북에서 내려올 때 보따리 속에 소금과 고춧가루를 싸 들고 내려왔던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고춧가루는 전쟁통 비상식량이다. 고추 말리는 생존이자 본능이다.

— 미추홀구 송의동 옛 전도관동네



시원하게 누려면 운동해!

골목길 다닐 때 반가운 공간이 공중화장실이다. 볼일 도 보고 이것저것 만졌던 손을 깨끗이 닦으면 마음도 개운하다. 목덜미에 물을 적셔 잠시 무더위를 잊곤 한다. 볼일 보고 나오는데… 피식. 한 남자가 철봉을 하고 있다. 들어갈 때 보이지 않던 그림이 역광 때 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 운동 열심히 해야 소변도 건강하겠구나.

— 부평구 산곡동 옛 영단주택 동네



쟁탈전 현장, 공동변소의 흔적

좀 떨어진 곳에 여러 집이 사용할 ‘하꼬방’ 공동변소를 만들었다. 매일 아침이면 자리 쟁탈전이 벌어졌다. 골든타임에는 더 치열했다. 변소 앞에서는 경로우대나 노약자 보호도 없고 ‘레이디 퍼스트’는 무슨 강아지가 풀 뜯어 먹는 소리냐고 치부되었다. 이제 마을도 없어졌고 사람도 떠났다. 공동변소도 사라졌다. 변기 속 잡풀만 남아 있다.

— 동구 만석동 아카사키촌

순간 공포로 의외의 재미를 체험했던 에피소드도 있다. 2019년 재개발로 인해 중구 신흥동의 일본식 주택 몇 채가 한동안 빈집으로 남아 있었다. 집 구조가 궁금해 가끔 ‘무단출입’을 감행했다. 홀로 빈집을 둘러본다는 것, 그것도 구조가 낯선 일본식 집을 본다는 것은 대낮임에도 머리칼이 쭈뼛거리는 공포감이 있다. 다다미 깔린 빈방을 둘러보는 순간에는 일본 공포영화 ‘령’의 한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바로 TV 상자에서 머리 풀어 헤친 귀신이 나오는 그 장면이다.

8월 삼복더위 중 어느 날, 이미 두어 차례 둘러봤던 이층 짜리 빈집에 다시 들어갔다. 이 집에는 가파른 사다리형 계단을 이용해야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 같은 작은 방이 있었다. 그날도 사다리를 딛고 올라가서 닫혀 있는 쪽문을 별생각 없이 열어젖혔다. 문을 여는 순간 사다리 밑으로 곤두박질할 뻔했다. 시커먼 두 물체가 좁은 방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으악, 귀신… 누구…세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멋쩍게 웃더니 “니혼진, 니혼진”을 연발했다. 그들은 일본 귀신이 아닌 일본 사람들이었다. “포또, 포또” 하면서 삼각대에 세운 사진기를 보여줬다. 그 와중에 나는 그들을 순간적으로 ‘귀신같이’ 재빠르게 찍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은 위안부 문제로 급냉 상태였고 우리나라에서는 ‘노재팬’을 외치며 반일 데모가 연일 벌어졌다. 그들은 혹시 봉변을 당할까 봐 숨죽인 채 웅크리고 있던 것이다. 한 달 후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선조들이 식민지 조선에 남기고 간 주택들을 조사하고 기록하기 위해 현해단을 건너온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이었다. 나는 그 이후 빈집을 한동안 들어가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니 그들 덕분에 도파밍 ‘만땅’ 경험을 한 것이었다.



신흥동에서 만난 일본인들

**조르조 아르마니도 탐낼 승승 패션**

6, 70년대에는 한여름이 되면 ‘난닝구’ 바람이거나 아예 웃통 벗고 맨몸으로 골목에 앉아 있는 아저씨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요즘에 그랬다가는 바로 ‘개자씨’ 소리를 듣는다. 삼복더위 날 횡단보도 앞에 바람이 승승 통하는 조끼를 입은 아저씨가 서 있었다. 무풍 에어콘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 차림새다.



개 팔자, 아무도 모른다

부둣가 빈집을 겨우 얻게 되었다. 이 집은 모진 비바람에도 꼬딱없다. 창문도 나 있어 적당히 빛도 들어오는 안락한 집이다. 한때 해안을 지키던 군인과 예비군이 사용했다고 하지만 견공(犬公) 몸 하나 기거하기엔 전혀 불편 없는 '호화주택'이다. 유사시 군인들이 다시 이 집으로 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 개는 줄지에 군견(軍犬)으로 징병 될지도 모른다. 개 팔자 아무도 모른다.

— 동구 화수동 화수부두

가스통 녹여주는 신(辛)라면

엄동설한이다. 가스통이 얼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렇다고 집안에 들여놓기도 위험하다. 찬 바람을 막고 보온을 하기 위해 라면 박스로 둘러 감쌌다. 그 후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었지만 가스통은 더워서 땀을 흘렸다. '신'라면 덕분이었다. 얼얼한 매울 '신(辛)' 효과 만점.

— 중구 도원동 70계단 동네



감찰 監察

/ 류인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늘 지켜보시니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숨을 곳이 없습니다.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 눈앞에서 벌거숭이로 살아갈 뿐입니다.

'디카시', 낮선 단어로 보이는 이 용어가 우리나라 문학에 새로운 장르를 펼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디카시는 '디지털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영상을 포착하여 찍은 사진과 함께 문자로 표현한 시'라고 되어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 장르로 언어예술이라는 기준 시의 범주를 확장하여 영상과 문자를 하나의 텍스트로 결합한 멀티 언어예술'이라고 설명한다.

청보리

/ 정이수

/ 류인재

바람따라 몸을 뉘던 청보리
그예, 은밀한 사랑을 들켰나 보다
파랗게 질린 모습으로 뒤척이다
시침 뚝 떼고 일어선다



감찰 海鳴

/ 한기홍

태초가 아득히 울고 있다
검푸른 원시, 그 뉙진한 희열
우르릉 꾸양
고락으로 결속된 모든 의미들에게
바다는 늘 울고있는 어머니다



술 빚는 사람들

인천 가양주 동호회 고문 이성렬을 만난다

글·사진 / 이목연(예술인천 편집장)



옹근달양조장 주모 이성렬

도파민은 의욕적이고 흥미로운 일을 경험할 때 솟는 신경전달물질이다. 이 도파민과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잘 가꾼다는 의미의 인터넷 용어 팜(farming)을 결합하여 도파밍이라고 한다. 이번 예술인천의 컨셉이 이 ‘도파밍’이다.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해 도전하고 그 도전이 뿌리를 내려 의미를 갖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 이런 행복감에 싸여 도파밍을 실천하고 있는 인물, 인천 가양주 동호회 이성렬 고문을 만났다. 십여 년째 전통주를 빚으며 연구하고 가르치는 옹근달 양조장의 주모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전통주는 와인의 역사보다 500년 이상 앞섰거든요, 그런데 일제 강점기 이후 거의 그 맥이 끊겼어요. 정말 훌륭하고 독창적인 맛을 가진 술인데 말이죠.”

이성렬 주모는 만나자마자 우리나라 전통주의 현실을 들려주었다. 반짝이는 눈빛은 누가 봐도 사랑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다.

“1909년까지 우리나라에는 39만 개의 주막이 있었어요. 그 주막마다 손수 빚은 술을 길 손들에게 제공했지요. 그뿐 아니라 왕가는 물론이고 양반가, 민가에서도 명절이나, 관혼 상제 대사를 앞두고 술을 빚었어요. 그 집의 물맛과 안주인의 손맛에 따라 맛이 다른 우리 고유의 술이었지요. 술은 사람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문화의 산물이잖아요. 이런 우리 선조들의 풍요로운 문화가 계승되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집집마다 술을 빚어 손님을 치르던 문화는 일제 강점기 양곡관리법과 주세법에 따라 사라졌다. 일본제국주의는 자신들이 내린 주방문(酒方文)을 바탕으로 양조장에서만 술을 빚을 수 있도록 했다. 관혼상제에 술을 뺄 수 없었던 우리 조상들이 몰래 술을 담그면 그들은 잔칫날 집안의 가장 웃어른을 잡아다 고문을 하고 술 만든 사람을 가두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우리 고유의 술은 점차 명맥을 잃게 되고, 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풍미와 문화를 복원하지 못했다.



“우리 술에는 누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내린 주방문에는 일본에서 발효한 황국균이나 백국균을 넣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누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거지요. 누룩 이야기로 개별의 술맛을 내는 주요 물질이거든요. 우리의 몸과 정신이 기억하는 본연의 맛을 낼 수 있는 술은 우리 땅에서 자란 누룩이 들어가야 합니다.”

술을 빚어 위에 뜬 맑은 술이 청주요, 그 아래 가라앉은 탁한 것이 탁주, 그 마지막에 가라앉아 있는 걸쭉한 것이 지게미 술이다. 우리 술은 발효 기간에 따라 16도에서 12도의 술이 된다. 청주를 뜨고 탁주를 걷고 그 아래 지게미를 걸러 물을 타 6도로 맞춘 술을 막걸리가 불렀다. 그 막걸리가 기준이 되어 요즘 생산하는 막걸리도 6도에 맞추는 거라고.

“요즘 포트 와인이 유행이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그와 비슷한 과하주를 만들어 드셨어요.”



증류수에 와인을 탄 유럽의 포트와인처럼 우리 조상들도 증류주인 소주에 발효주를 섞어 여름을 나기에 적당한 과하주를 담아 마셨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술은 잊혀지고 포트 와인은 유행하니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주모가 이런 전통주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궁금했다.

“저도 처음엔 와인과 사케 등을 즐겼어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고유한 맛을 가진 우리 술이 없을까 애석해하던 중 한 모임에 갔는데 어느 분이 냉장고에서 2년 묵었다는 술을 가져와 흥어 무침이나 넣으라고 내놓더라고요. 처음에는 상한 술 같아서 달갑지 않았지요. 그런데 살짝 맛을 보니 세상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

소주와 맥주 사케의 부족한 부분을 온전히 채워주는 술맛이었던단다. 어느 한 곳 빈틈 없이 채워져 있는 옹근 맛에 주모는 충격을 받았다. 이런 술을 어디서 파는가 하고 물었더니 담근 술이라고 했단다. 술을 즐기지 않는 분들이라 냉장고에 그냥 넣어두었던 것인데 숙성이 되어 가장 맛있는 술이 되었던 거라고.

“우리 술은 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잘못되었다고 버리면 안 돼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계속 숙성합니다. 그게 누룩의, 우리 술의 힘이지요.”

그 사건 이후 우리 술의 맛과 매력에 빠져 조금씩 술을 담아 지인들 모임에서 맛보게 했던 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우리의 전통주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조상들은 요즘처럼 급히 취하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시를 짓거나 담론하며 곁들이던 문화의 하나였지요. 이런 멋진 우리의 술과 문화가 잊히는 게 아쉬웠어요.”

그런 이유로 전통주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점점 매력을 느껴 우리 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주모는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여성의 광장 등에서 우리 전통주에 대한 역사와 기본 양조법을 비롯해 누룩 띄우고 술 빚는 강의를 하느라 바쁘다. 또 오래전 맛본 옹근 달 같은 술맛을 잊을 수 없어 옹근달 양조장도 만들었다. 기본에 충실한 전통주, 본막걸리가 주모의 첫 번째 작품이다.



이제는 입소문이 나 기존에 양조장을 하는 사람들도 강의를 듣는다고 했다.

“술은 누룩 맛이거든요. 그런데 자가 누룩을 만들어 술을 빚는 곳이 전국에 일곱 곳뿐이에요.”

인천에도 네 개의 양조장이 있지만 누룩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곳은 주모의 옹근달 양조장 뿐이라고. 옹근달본막걸리는 오양주다. 오양주란 효모에 밥을 다섯 번 주면서 밑술과 덧술을 반복하며 빚는 술을 말한다. 그 과정에서 더욱 깊고 풍부한 맛과 함께 과일을 안 넣어도 과일 향이 나오고 꽃향이 나는 술이 탄생한다고. 예전 궁에서는 구양주까지 빚었지만 현재는 오양주가 최고의 기법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 우리 술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던 일본은 요즘 누룩 연구가 한창이란다.

“일본의 개량식 누룩은 제조 기간의 단축과 연중 제조는 가능하지만 예전 가문마다 전해오던 가양주 비법은 살릴 수 없어요. 당연히 술맛과 품질이 퇴보했지요. 전통 누룩으로 빚은 술맛의 깊이는 개량식 누룩으로는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걸 일본 사람들도 깨달은 거지요.”

우리의 전통주를 재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누룩을 더 연구하고 싶다는 주모는 해마다 6월이면 해남의 앉은뱅이 햅밀을 구입한다. 밀을 타서 반죽하고 베자기에 싸 누룩틀에 넣고 밟아 벽돌 누룩을 만드는 과정에 참외즙을 섞는다. 왜 참외즙이냐고 물었더니 옛 문헌에 나오는 방법이라고. 첨가액에 따라 누룩 맛도 달라지고 술맛도 달라진다. 문헌에 여뀌즙도 나오는데 언젠가는 여뀌즙도 써 볼 것이라고 한다.

누룩에 솜털같은 효모가 뾰얗게 올라오는 걸 보면 뿌듯해진다는 주모는 이 발효과정도 두 달 가까이 걸린다고 했다. 이렇게 완성된 누룩을 잘 말려서 햅쌀과 섞어 오양주를 담는다. 효모가 좋아하는 온도 25도를 유지하는 게 관건. 술이 발효되면서 아래에서는 술이 차오르고 위로 밥알이 떠오르는 모습은 마치 발레공연을 보는 것 같다는 주모.

“톡톡 터지는 소리는 배경 음악 같아요. 솔솔 잠이 오는 소리랄까요.”

우리 선조들은 술 빚는 일을 꽃 채취부터 누룩 빚어 발효하고 술 담아 숙성시키기까지 마치 수양하듯 준비했다. 그런 술을 어찌 요즘처럼 벌컥벌컥 마실 수 있었겠는가. 주모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이렇게 누룩으로 빚은 일본 술은 비싼 와인 못지않게 고가로 거래된다고 했다.

주모에게 술을 빚던 중에 기억나는 에피소드를 물었다.

“처음 양조장으로 이사한 첫 해 여름에 술을 담았어요. 마음이 급했거든요. 그런데 기온이 너무 높아 술이 시어버렸어요. 망했구나 싶었지요. 그래도 아까워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다음 해 종류수를 만든다는 곳에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맛본 술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괜히 가져왔다 싶었답니다. 우리 술은 아주 시게 되었어도 오래 묵으면 후숙이 되어 아주 맛있어져요. 우리의 전통주는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주모는 원데이클래스를 비롯 강의를 통해 연 300여 명에게 우리 술의 아름다움과 조상의 풍류를 알렸다. 이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인천 가양주 동호회도 생겼다. 가양주 동호회 회원들은 각자 담은 술을 가져와 서로 맛을 음미하고 품평도 한다. 작년에는 강화섬쌀 주최 제1회 즉석품평회를 열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우리 인천의 상징적인 날, 농악 공연이 있는 자리라거나 문화예술이 있는 곳에서 전통주 시음회를 열고 싶은 소망도 있다.

우리 전통주의 비전에 대해 물었다.

“모든 산업은 레드 오션(경쟁이 치열하여 핏빛으로 물든다는 의미)이잖아요. 그러나 전통주는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은 블루오션(경쟁자를 이기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계 없이 독창적으로 상품을 개발해 낼 수 있는 시장)이에요. 현재 대량 시판되는 우리나라 술은 조미주예요. 조미주는 세계적 명주 대열에 들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전통주는 가능하거든요. 우리의 가양주는 블루오션입니다.”

주모는 언제 전통주의 르네상스가 올지는 모르지만 요즘 가치에 맞는 우리의 전통주가 다시 각광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미 숙성 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형 양조장에서 전통 기법으로 품질 좋은 우리의 술을 빚는다면 그 시대가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봤다.

울울한 뜰 안의 대청마루에서, 수양벼를 늘어진 평상 아래에서 찾아온 손님을 위해 기꺼이 내놓던 우리 조상들의 술.

“예술과 술을 어떻게 떼어 생각할 수 있겠어요.”

주모의 말에 한껏 고개가 끄덕여졌다. 전통주를 이렇게 정성스레 빚고 알리는 주모가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우리의 술이 세계적 명주의 대열에 오르는 날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았다.

세심한 추진력이 돋보이는 첫 여성 회장 인천문인협회 정경해 회장

글·사진 / 인천문인협회 배천분 사무국장



인천문인협회 최초 여성 신임회장으로 당선되셨는데
소개와 소감 말씀해주세요.

싱그러운 6월의 초록 햇살을 받으며
수봉문화회관 문인협회 사무실에서
정경해 회장을 만났다.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의 소회를 들어
보기로 한다.

정경해 회장은 1995년 지금의 <시민문예대전>
전신인 <인천문단> 신인상 대상을 받으며 인
천문인협회 회원이 되었다. 1998년 <한국수
필>, 2005년 <문학나무>, 2016년 국민일보
신춘문예 당선 등 30여 년 동안 열정적으로 문
단 활동을 하며 7권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지금
현재 인천문인협회 회장이 되어 '문학으로 화합
하는 선한 영향력의 인천문협'을 이끌고 있다.



인천문협 회장으로서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자랑스럽
기도 하고 무척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출마를 결
심했던 것은 아니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선거에 입후보하
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등록을 한 이후부터는 제 마음
가짐이 달라지더군요. 이왕 회장에 도전했으니 인천문협
을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해 일해 보겠다는 각오가 생겼습
니다. 다행히 회원들께서 많은 성원과 응원을 주시어 감사
하게도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인천문협 회장으로서는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인천문협 역사상 여성이 회장이 처음이다 보니 아무래도
회원들께서 조금 더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매
사 꼼꼼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군요. 하지만 여성 회장,
남성 회장이 크게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이 어떤 면에서는 더 세심한 부분이 있지요. 그냥 회장
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문인협회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섬
기는 회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성 최초라는 수식
어에 부담 갖지 말자 생각하며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일
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인천문협을 이끌어 오면서
어려웠던 일이나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지요.**

회장에 당선되기 전 인천문협 부회장과 이사 등을 맡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만, 당선되고 처음에는 조금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230여 명의 회원 모두가 협회에서 하는 일에 협조를 잘 해주셨고 임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지금까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보람 있었던 일은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중 2023년 5월 여주로 봄 문학기행을 갔는데, 인천문협 최초로 8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버스 두 대로 다녀온 것입니다. 아마 때마침 코로나19가 해제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약했던 '미추홀문학상'을 제정한 것입니다. 또 2024년 올해는 문학기행을 해외로 다녀온 것입니다. 일본 교토와 오사카를 일정으로 정지용, 윤동주 시비가 있는 도시샤대학을 탐방했습니다. 문학인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여행이어서 보람이 컸습니다.

어려웠던 일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작년 수봉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 사무실 집기와 책을 옮기는 일 등 힘쓰는 일이 있을 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회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잘 해결해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인천문협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랑스러운 사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천문협에서 진행하는 몇 개의 사업이 있는데 먼저, <시민문예대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인천시 지원과 인천문협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 소설, 수필, 동화, 평론 각 부문에서 1명씩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상금을 주며 신인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문학에 뜻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좋은 작가를 발굴할 수 있어 대단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또 인천시가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지하철에 부착하는 시 공모 <내 손안에 인천 사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인천에 대한 것으로 향토문화를 시로 표현하여 내 고장을 알리는 사업이라 뜻 깊습니다. 올해로 5회째인 <우리 동네 이



야기 5>도 작가들이 쓰는 내가 거주하는 동네 이야기로 인천을 알리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문협에서 발행하는 계간 <학산문학>은 인천시에서 제일 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간 <학산문학>이 전국지로서 크게 인정받고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학산 편집진들이 심혈을 기울여 필진을 섭외하고 편집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미추홀 문학상>에 대한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제가 회장에 입후보하며 선거공약으로 발표했던 '미추홀문학상' 제정이 2024년 올해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통과되었습니다. 올해 제1회 수상자를 선정하여 12월에 시상식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미추홀문학상'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문인협회 회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천문협에서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인천문학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입회 5년 이상 된 회원으로 해당연도에 저서를 출간한 회원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응모작품집 중 가장 우수한 작품을 쓴 회원이 인천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됩니다. 그런데 인천문학상 수상 후에는 더 이상 문협에서 수여하는 다른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문협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며 인천문협과 인천 문학의 위상을 높인 회원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고자 이 상을 제정했습니다.

인천문학상과 같은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여 그동안의 문학적 업적을 높이 사며 문단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편집자 주: 정경해 회장은 미추홀문학상 상금 2회분을 기부함.

해외 문학기행을 해외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2024년 5월 20일에 2박 3일간 일본으로 문학기행으로 다녀왔습니다. 일본으로 문학기행 여행지를 선정한 이유는 교토 도시샤대학 졸업생으로 우리나라 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정지용, 윤동주 선배 문인의 발자취를 돌아보고자 함입니다. 대학에 세워진 시비를 둘러보며 시인들의 문학사적 가치를 되새기는 데 의미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를 통해 회원 개인의 작품 창작 의욕을 고취하자는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학기행을 통해 또 큰 수확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문학기행에 참여한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이 잘 이루어져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모두 즐겁고 좋은 기억을 담아올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남은 임기 동안 회장 임무를 잘 수행하고 앞으로 실행될 인천문협 사업을 추진하며 회원들과 지금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심을 잊지 말자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니 끝까지 문인협회 회원을 섬기는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시집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어 계획대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의 문학 활동과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세요.

솔직히 회장 업무를 하다 보니 인천문협에도 출근해야 하고 제 개인 문학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체하지 않고 꾸준히 글을 쓰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회원 모두가 문인으로서의 사명, 곧 글을 쓰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천문협의 위상이 높아지려면 회원 개개인이 글을 잘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회장으로서 기대치에 못 미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끝까지 지켜보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도움을 주시는 회원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올립니다.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

인천예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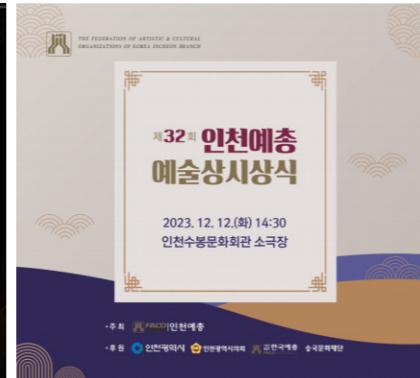
인천예총

▣ 2024 제33회 인천예총 예술상 시상식

한 해동안 인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예술가와 공로들에게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하여 예술상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행사이다. 올해 역시 인천 예술가들의 창작과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로 열릴 예정이다.

- 일시 : 12월 예정
- 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 주최 : 인천예총

※ 차후 행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전달 예정



▣ 2024 인천 만년(萬年) 아카이빙

근현대 개항의 중심이자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모습을 문화예술로서 아카이빙하여 기록으로 남김으로서 문화적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며, 행정구역의 개편화로 인해 사라질 옛 인천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유산 가공이 가능토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전시기간 : 10~11월 예정
- 주최·주관 : 인천예총
- 후원 : 인천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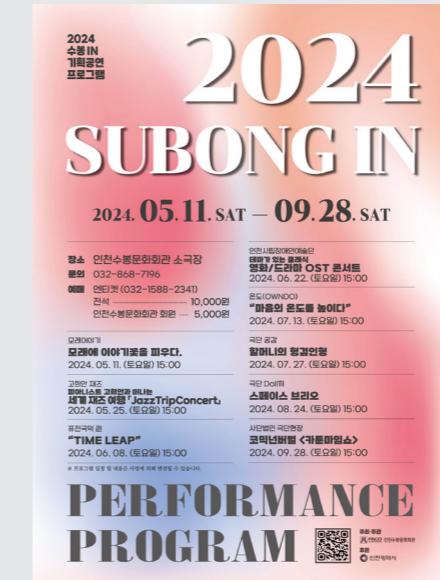
※ 차후 행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전달 예정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

인천수봉문화회관

인천수봉문화회관

▣ 2024년 수봉IN 기획공연



- 관람 : 엔터켓 예매, 전석 10,000원
(회관 회원 사전 예매 5,000원)
- 문의 : ☎ 032-868-7196



자세한 내용은 QR코드
참고 바랍니다.

• 마음의 온도를 높이다 – 온도

- 일시 : 2024.07.13. (토) 15:00
- 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 대상 : 인천시민
- 내용 : 국악을 보다 쉽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공연입니다.

• 할머니의 형겼인형 – 극단 공감

- 일시 : 2024.07.27. (토) 15:00
- 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 대상 : 인천시민
- 내용 :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할머니가 만든 인형들이 살아 움직인다 ?!

• 스페이스 브리오 – 극단 Doll끼

- 일시 : 2024.08.24. (토) 15:00
- 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 대상 : 인천시민
- 내용 : 우주에 살고있는 브리오들을 무사히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코믹년버벌 ‘카툰마임쇼’ – 극단 현장

- 일시 : 2024.09.28. (토) 15:00
- 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 대상 : 인천시민
- 내용 : 마임테크닉을 이용한 눈앞에 움직이는
유쾌한 카툰 마임쇼!

인천수봉문화회관



• 物我一體(물아일체) - 오정석

- 일시 : 2024.07.09. (화) ~ 07.13 (토) 10:00~17:00
 - 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제2전시실
 - 대상 : 인천시민
 - 내용 : 한국의 풍경을 그린 수묵산수화와 꽃을 주로 그린 채색화입니다.



- 아이러니 - 김효정

- 일시 : 2024.08.20. (화) ~ 08.24 (토) 10:00~17:00
 - 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제1전시실
 - 대상 : 인천시민
 - 내용 : 사운드와 이미지의 장점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애니메이션과 텍스트와 이미지의 결합인 동화책, 단편 만화를 통해 ‘아이러니’에 대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 함께 걷는 경로 - 김정0

- 일시 : **2024.09.24. (화) ~ 09.28 (토)** 10:00~17:00
 - 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제2전시실
 - 대상 : 인천시민
 - 내용 : 바라보고있는 풍경과 나라는 존재가 그 어떤 분위기와
‘함께 어우러져 걸어가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 관람 : 무료

 2024년 수불 PICK! 기획골예

- | | |
|------------------------------|---|
| - 일시 : 2024.10월 ~ 11월 | - 내용 : 아동들을 대상으로한 가족 연극 시리즈 공연 예정입니다 !! |
| - 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 - 관람 : 엔티켓 예매, 전석 10,000원 (회관 회원 사전 예매 5,000원) |
| - 대상 : 인천시민 | - 문의 : ☎ 032-868-7196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

미추홀문화회관

미추홀 문화회관

• 미추홀 문화회관 정규 강좌운영

구분	강좌 기간
91기 여름학기	2024.06.01. ~ 2024.08.17.
92기 가을학기	2024.09.03. ~ 2024.11.23.
93기 여름학기	2024.12.03. ~ 2025.02.21.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mchart.co.kr)



개강 및 종강안내							
학기	교번	학	수	목	금	토	일
제1학기 2024.1.2. (금) 2024.5.22. (금)	개강	3월 5일	3월 6일	3월 7일	3월 8일	3월 9일	
	종강	5월 14일	5월 15일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여름학기 2024.6.1. (화) 2024.8.22. (금)	개강	6월 4일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6월 8일	12월
	종강	8월 13일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	8월 17일	
여름기 2024.6.1. (화) 2024.8.22. (금)	회차	11회	10회	11회	11회	11회	
	개강	6월 4일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6월 8일	
기말학기 2024.9.3. (수) 2024.11.23. (금)	개강	9월 3일	9월 4일	9월 5일	9월 6일	9월 7일	
	종강	11월 20일	11월 21일	11월 22일	11월 23일	11월 25일	
기말학기 2024.12.3. (금) 2025.2.26. (금)	회차	11회	10회	11회	12회	12회	
	개강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12월 6일	12월 7일	
기말학기 2024.12.3. (금) 2025.2.26. (금)	종강	2월 11일	2월 12일	2월 13일	2월 14일	2월 15일	
	회차	10회	10회	10회	12회	11회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조율될 수 있습니다
*보강 : 강사개인사정으로 수업 휴강 시 수강생들과 논의 후 보강진행

입니다
제들과 논의

미추홀문화회관

• 미추홀 문화회관 정규강좌 수업 전경



■ 2024년 미추홀 문화회관 “소소음악회”

• 2024년 미추홀 문화회관 음악회 진행 현황 및 예정



[아피클래식]
아(띠)미(니)콘서트
4.24.수 7PM



[매직저글링]
태윤의 매직서커스
6.26.수 7PM



[제이요들프렌즈]
제이요들프렌즈
9.25.수 7PM



[앨리스연가]
달달한시
10.30.수 7PM

4명의 혼성 성악가들이 출연하여 전통 오페라부터 가요, 뮤지컬, 디즈니, 팝페라, 그리고 트로트까지! 남녀노소 나이 불문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신기한 마술공연과 스펙타클한 저글링공연에 콜라보레이션! 화려하게 수놓을 ‘레이저’ LED 퍼포먼스와 재치있는 입담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코믹 미술 공연,

알프스의 첫 자락이 시작하는 스위스의 고요한 정적의 알파인요들과 오스트리아 티롤지방의 요들 그리고 맥주의 나라인 독일의 바이에른 지방의 요들과 연주를 들려준다.

미추홀문화회관

▣ 미추홀 문화회관 기타 사업 계획

• 미추홀 문화회관 기타 사업 계획

강좌명	내용	일정	2024년 진행 현황
나도 전문예술가	미추홀 문화회관 수강생 회원 나눔전(전시)	11월 중	2024년 11월 7일~12일 회원 나눔전 진행예정(수봉문화회관 예정)
	미추홀 문화회관 수강생 회원 나눔전(공연)	11월 중	2023년 11월 23일 회원 나눔전 진행예정 (미추홀문화회관 다목적실)
미추홀 댄스단	미추홀댄스단 정기공연	10~11월중	미추홀댄스단 10, 11월중 제15회 정기공연 예정
성악 중창단	성악 중창단 공연	하반기 개인공연 예정	성악중창단 개인공연 및 합창공연 예정

▣ 미추홀 문화회관 동호회 및 심화반 - 발레, 댄스, 성악, 서예, 미술



• 문학시어터 화요수업 - 뮤지컬 위드 미(Musical with Me)

- 일시 : 2024.04.30. ~ 06.29 (10주간)
- 장소 : 문학시어터
- 내용 :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뮤지컬 교육 프로그램으로 10주에 걸쳐 뮤지컬의 기초 호흡, 발성, 안무를 연습하고, 직접 무대에 오르는 경험을 제공하는 완성형 프로그램이다. 6월 29일(토)에는 전 교육생이 참여하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 과학좌담 - 환갑삼이 토크콘서트

- 일시 : 2024.06.01. 17:00
- 장소 : 문학시어터



알쓸신잡, 어쩌다 어른, 차이나는 클래스 등 각종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과학과 인문학의 대중화에 앞장섰던 전 국립과천과학관장 '이정모', 도서평론가 '이권우', 천문학자 '이명현'이 이끌어 갈 [환갑삼이 토크콘서트]는 이미 22개 도시에서 개최되어 어큰 반향을 일으킨 좌담이다. 환갑을 맞은 세 친구가 누는 '시', '별', '과학'에 대한 대화와 변화하는 환경을 대하는 해석을 통해 각자의 분야에서 개척자로 살아온 이들의 깊은 통찰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관객들과의 인터렉티브 세션을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거나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장도 마련된다.

• 제2회 김목경 블루스 페스티벌

- 일시 : 2024.08.29.~31. 17:00
- 장소 : 문학시어터



한국을 대표하는 블루스 뮤지션 '김목경'이 2023년에 이어 두 번째 블루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김목경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출연자를 선정하여, 공연 큐레이팅과 협연, 진행까지 참여하는 [김목경 블루스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블루스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의미있는 공연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올 해에는 한국 공연팀 뿐만 아니라 일본 블루스 연주자들까지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블루스 음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Korean Traditional Music Association

국악 관현악단과 함께하는 신(新) 한류의 물결

- 일시 : 2024.06.29. ~ 06.29 (월)
- 장소 :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 야외무대
- 공연프로그램 :
 1. 사물놀이를 위한 '신모듬'
 2. 고구려의 혼 홍재동 작곡
 3. 통소을 위한 청의 울림 협주곡 최여영 구성
 4. 국악가요 'Rhapsody in 인천' 최여영 작곡
 5. 아름다운 나라
 6. 사랑
 7. 국악관현악 방황 이경섭 작곡
 8. 남상일 (밴드음악 & 악단 & 장타령)
 9. 쾌지나 칭칭나네



〈인천국악회관 기획공연〉

소(통하는)금(요일) 국악 렉처콘서트

- 2024.06.28.(일) 경기민요 소리꾼 전영랑의 잡가프로젝트
- 2024.08.30.(금) 현악앙상을 '담은'의 보물 담은 미추홀
- 2024.10.25.(금) 손삼화 춤담 '나비의 꿈'

- 시간 : 저녁 7시

- 장소 :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 야외무대

- 내용 : 인천국악회관에서 기획한 공연으로 다양한 장르의 국악공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영랑은 이야기와 극적인 요소들을 담아내는 음악구성으로 잡가에 대한 이해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은 만들고자 합니다. 현악앙상을 '담은'은 재미있고 신비한 인천의 이야기를 담은의 색으로 재해석해 음악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손삼화의 춤담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인천시민들의 자화상을 인천 향토춤으로 표현하며, 전통적 공연 형태의 정서를 되찾고, 한국무용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장소: 인천국악회관 교연장 (2층)
티켓: 무료 예약문의: 032-876-6364
주관: 인천국악회관 후원: 인천광역시 인천국악협회

인천 대한민국 국악제 - 풍류굿

- 일시 : 2024.09.06 (금)
- 장소 : 부평아트센터
- 내용 : 인천을 대표할 만한 국악축제가 없기에 풍류굿을 통해서 인천의 도심 중심에서도 국악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 어우르는 문화공동체를 형성하여 세대 공감의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장소는 사정에 의하여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방학무료특강〉 방학 속 국악 찾기

운영강좌: 가야금. 해금 or 사물놀이

- 일시 : 7월 29일, 8월 5일, 8월 12일, 8월 19일 (월)
- 시간 : 가야금·해금 : 10:00 ~ 11:30
- 장소 : 인천국악회관
- 모집대상 : 초·중·고 청소년 학생(선착순 10명 이내)
- 1인 1강좌만 가능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
- 내용 :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4주 과정으로 학교 음악수업에 필요 한 국악수업을 특강형식으로 진행하려합니다. 운영 강좌와 시간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사)대한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

Korea Dance Association

⌚ 2024, 제33회 전국무용제

- 일 시 : 2024년 9월 중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개최

전국무용제는 개막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10일간, 1일 2작품씩 전국의 16개 시·도의 지역대표무용단이 경합을 벌이는 프로그램으로 인천광역시 대표팀은 2023년 5월 20일 개최된 “제33회 전국무용제”를 통하여 대표 단체를 선발하였다. 인천무용제 무대에서 우수한 작품성으로 선정된 “Solo 부문 - 김영은 안무가의 작품 [Dear]”와 “단체부문 - JS Dance(안무 이재선)의 작품[Log-line]”은 무용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항상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인천의 무용예술단체로써 전국의 무대에 현대무용의 가치를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지는 전국무용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기대하는 바이다.



단체부문 선정 - JS Dance



솔로부문 선정 - 김영은

⌚ 2024, 제12회 인천국제현대무용제



- 일 시 : 2024년 11월 2~3일(토~일)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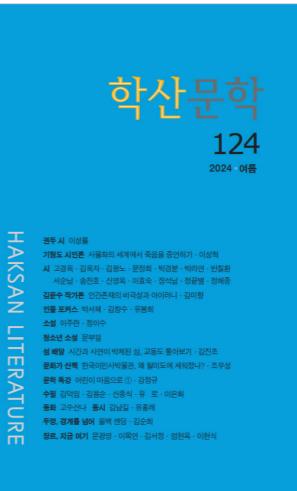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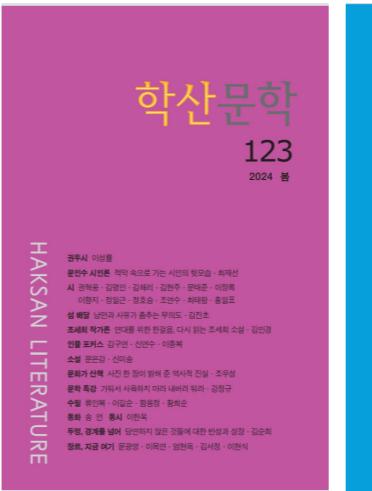
- 장 소 : 예술공간 트라이보울 공연장

인천국제현대무용제는 인천의 시민관객에게 좋은 작품을 통하여 무용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무용예술 발전 및 신진예술인 발굴, 참가작품의 연속적 공연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예술인에게는 예술적 경험을 통한 역량강화를, 관객에게는 좋은 작품을 통한 무용의 관심을 높이고자 ‘인천국제현대무용제(ICOF)’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사)한국문인협회 인천지회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 2024년 <학산문학> 봄(123호), 여름호(124호) 발간



여름호엔 이성혁 평론가의 ‘기형도 시인론’을 위시해서 김미향 평론가의 ‘김문수 작품론’, ‘인물 포커스’의 박서혜 시인, 이주란 작가의 단편소설 등이 시선을 끈다. 그뿐만 아니라 김왕노 시인, 문정희 시인, 반칠환 시인, 송찬호 시인, 장석남 시인, 정호승 시인, 홍일표 시인 등의 읊을거리가 풍성하니 일독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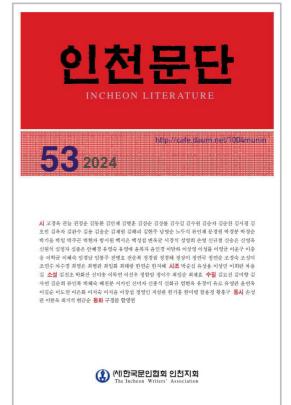
참고로 계간 《학산문학》은 인천광역시통합전자도서관에서 무료로 대출할 수 있다.

⌚ 2024년 <인천문단> 제53집 발간

인천문협 기관지 《인천문단》 제53집을 발간하며 122명의 회원 작품을 수록하였다. 시 75명, 수필 28명, 소설 9명. 동시 4명, 동화 2명, 시조 4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다.

인천의 대표 문예지인 계간 《학산문학》이 봄호(통권 123호)와 여름호(통권 124호)를 발행했다.

봄호엔 새로 선을 보이는 조우성 시인의 ‘문화가 산책’이 눈에 띈다.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김진초 작가의 ‘섬 배달’, 강정규 작가의 ‘문학 특강’, ‘장르, 지금 여기’의 문광영 평론가 · 이목연 작가 · 엄현옥 평론가 · 김서정 평론가 · 이현식 평론가의 우수한 글도 독자들을 찾아간다. 그밖에 권혁웅 시인, 김명인 시인, 문태준 시인, 이정록 시인, 정일근 시인, 정호승 시인, 홍일표 시인 등의 읊을거리를 풍성하니 일독하기를 바란다.



©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사)한국문인협회 인천지회

① 2024년 봄 문학기행 일본 <오사카, 나라, 고베>로 다녀와

인천문인협회는 봄 문학기행을 5월 20일~22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교토로 다녀왔다. 이번 문학기행은 교토 도시사대학 출업생으로 우리나라 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정지용, 운동주 선배 문인의 발자취를 돌아보기 위함이다. 대학에 세워진 시비를 둘러보며 시인들의 문학 사적 가치를 되새기는 데 의미를 두고, 이를 통해 회원 개인의 작품 창작 의욕을 고취하자는 목표도 있었다. 또 하나의 소득은 이번 문학기행은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이 잘 이루어진 것이다. 참여한 34명의 회원이 한마음으로 여행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즐겁고 행복한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② 2024년 제35회 인천시민문예대전 신인상 발굴 원고 모집

올해도 인천 및 전국 작가 희망생의 창작활동을 위한 2024년 제35회 인천시민문예대전 신인 발굴 문학작품을 공모한다. 인천시민문예대전은 미등단 신인 발굴 등용의 장으로 권위와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에 새바람을 일으켜 나갈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부문별 시상금 및 공모 내용]

- 시 시조부문(당선작 70만 원) : 5편 이상 (장시 제외)
- 소설 부문 (당선작 100만 원) : 1편 이상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 수필 부문 (당선작 70만 원) : 3편 이상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 아동문학 부문 (당선작 70만 원) : ① 동시 - 5편 이상 (장시 제외) ② 동화 - 2편 이상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 평론, 희곡, 시나리오 부문(당선작 70만 원) - 1편 이상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 응모 기간 : 2024년 9월 1일 ~ 10월 31일

* 보내는 곳 : 1004munin@hanmail.net (문의 ☎ 032-863-1797)

(사)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② 2024년 인천코리아아트페스티벌(IKAF)

오직 판매 목적의 타 아트페어와는 차별성 있는 순수 예술인들의 아트페어로서 갤러리에 속하지 않은 능력있는 작가들에게도 페어 참가 기회를 제공하여 미술가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기간·장소 : 2024.10.3.(목) ~ 10.06 (일), 4일간 / 송도컨벤시아 1전시홀
- 전시 주제 : 문화와 지역경제 화합 그리고 상생
- 참여 부문 : 아트페어, 작가작품시연, 기업연계콜라보, 작가와 시민 만남의 장
- 참여 작가 : 200명(전시작품 : 1,000~2,000점)



③ 2024년 제60회 전국공모 인천미술대전

올해로 60회째를 맞는 대표적인 신진작가의 등용문 공모전으로 기초 예술교육 및 미술교육이 뒷전으로 밀리는 교육현실 속에 300만 대도시 인천으로 문화융성과 미술진흥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추진

- 공모전 응모 부문 : 미술 전장르(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공예, 조각, 디자인, 민화, 서예, 한글, 문인화, 캘리그라피 등)
- 공모전 접수 : 1부 2024. 9. 20. / 2부 2024. 9. 6.
- 수상작 전시 : 2024. 10. 3.~ 6. 송도컨벤시아 1전시홀
- 초대작가전 전시 : 2024. 9. 20.~ 9. 26.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데 갤러리

④ 2024년 미주지역 현대미술작가 초대전 – 워싱턴 작가 Judy Sortherland, James Kim

- 문화적 다양성의 증진과 해외 예술계와의 협력 및 네트워킹 촉진
- 국제적 미술 교류를 통한 문화적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 도약
- 지역 예술가들과의 해외작가간 창작적 교류와 협업을 촉진
- 글로벌 미술 문화의 선두주자로서 인천의 역할 강화

2024.9.1.(일) ~ 10.31. (목), 2달 간

개항박물관 기획전시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제68회 전국 임해 사진촬영대회

인천의 사진예술 창달과 사진문화 저변확대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한국최초, 최장수 촬영대회로서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 발전시킴.

- 촬영 대회 : **2024.09.01** 오전 10시 (인천 월미도 갈매기홀)
- 시상일시 : 2024년 10월 19일- 10월 23일 인천수봉문화회관 1전시실
- 전시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제 1·2 전시실
- 주최·주관 :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후원 : 인천광역시, 예총인천광역시연합회, 인천일보, 경찰합동신문



인천의 사진예술진흥과 창작의욕 고취를 위하고 지역
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오래된 사진대전으로서
역사와 전통을 유지 발전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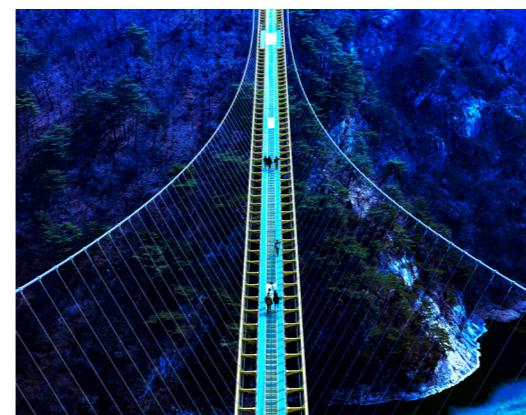
- 시상일시 : **2024년 11월 2일 (토)** 오후 2시
- 전시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제 1,2 전시실
인천시청역내 열린 박물관
- 주최·주관 :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후원 : 인천광역시, 예총인천광역시연합회
인천일보, 경찰합동신문

제42회 전국제물포 사진대전 개최요강



제85회 인천사진작가협회 회원 전시회

인천사진작가협회 회원전은 회원전을 통하여 사진 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작가의 발굴 및
배출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사진예술발전과 진흥에 쉼 없는
노력을 기울여 오신 회원님들의 흔이 담긴 회원전을 통
하여 다양한 사진 예술 작품을 만들고 더 깊은 감동과 함께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전시일시 : **2024년 11월 16일 – 11월 20일**
- 전시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제 1,2 전시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2024년 인천사진 연합전

인천에서 활동하는 사진동아리의 연합전시회

- 전시일정 : 2024년 11월 23일 ~ 11월 27일
- 전시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1·2전시실, 인천시청역내 열린 박물관
- 주최·주관 :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2024년 기획사진전 흔적을 찾아서

2024년도 인천의 과거와 현재의 서사적인 역사의 시간흐름을 사회, 인문학적으로 기록·표현하며 옛것을 재조명하며 사진으로 아카이빙 하고 출판을 통하여 인천시민과 함께 추억과 옛 문화를 향유한다.

- 제1차전시 : 12월 7일 ~ 12월 11일
- 제2차전시 : 12월 27일

2025년 1월 10일 예정

- 전시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전시실
인천시청역내 열린 박물관



(사)한국연극협회 인천광역시지회

Korean Theater Association

 제28회 인천청소년연극제



- 기간 : 2024년 6월 13일 (목) 오후 4시

개막식

2024년 6월 13일 (목) ~ 16일 (일)

경연(총5개학교)

2024년 6월 16일 (일) 오후 5시

폐막식(문학시어터)

2024년 6월 22일 오후 3시

인천청소년한마당축제
(9팀 축제)

- 장소 : 문학시어터

- 주최 : (사)인천연극협회

- 후원 : (사)한국연극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천예총

- 문의 : ☎ 032-862-9683(인천연극협회)

- 참여 : 연극제 – 5개학교 / 한마당축제 – 9팀



[인천 지역 예선]

- 기간 : 2024년 4월 11일 (화) 오후 3시

개막식

2024년 4월 11일 (화) ~ 19일 (금)

경연 오후 7시,

19일 오후 6시

2024년 4월 19일 (금) 오후 9시

폐막식(문학시어터)

- 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문학시어터

- 주최 : (사)인천연극협회

- 후원 : (사)한국연극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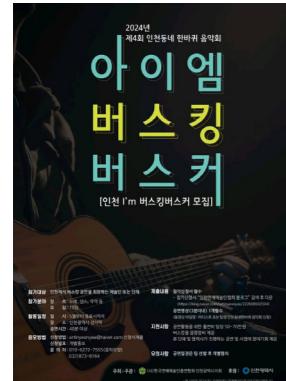
인천예총

- 문의 : ☎ 032-862-9683(인천연극협회)

- 참여 : 인천지역 정극단 8개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Korean Celebrity Artists Association



2024년 제4회 인천동네한바퀴 음악회

일상에서 음악에서 인천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예술을 통해 하나가 되고 음악도시 인천에서 문화예술의 사각지대 해소와 향유를 목표로 공모를 통해 170개팀중 발굴된 10팀의 수준높은 예술인들의 다양한 대중음악 공연(가요/팝/퓨전국악 등)을 인천시민들과 함께하고 재능있는 예술인들의 지원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및 고령층을 위한 컨텐츠 공연 등 일반적인 길거리 공연이 아닌 참여예술인과 함께 만들어가고 매회 스토리가 있는 공연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 일시 : 2024년 6월~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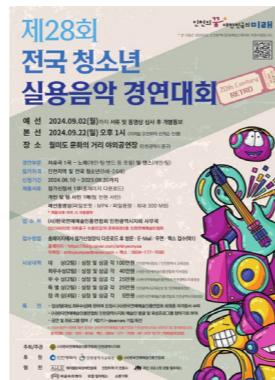
- 장소 : 인천 전지역

2024년 제28회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경연대회(20th Retro)

20th Retro라는 주제로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이 본선무대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을 겨루고 캐리커처 등 체험부스로 청소년의 생활예술 활성화와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립과 미래문화 예술양성에 이바지하였으며 안전한 대회를 위한 경호전문인력 배치 및 투명성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청중평가단 도입 등 수준높은 전국 대회로서 음악도시 인천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며 전국적인 실용음악 경연대회로서 인천의 실용음악학원들과의 연계로 기획되었으며 청소년으로 구성된 제2기 i-dreamers가 창단 및 기획사 캐스팅 등 도전적, 역동적으로 세계를 향한 청소년 대중 문화예술인 양성의 역할을 했다.

- 일시 : 2024년 9월 22일

- 장소 : 월미도야외공연장 갈매기홀



2024년 제28회 i-POP페스티벌

2024년 제28회 i-POP페스티벌은 선정된 인천의 곡 “인천행 열차” 등을 선정하였으며 대중가요를 인천드림팝스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하진우 오션녀 등 인천의 청년과 실버 가수들의 콜라보 무대로 공연하였다. 음악도시 인천시민 문화향유에 이바지하고 인천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무대에서 설자리를 잃어가는 종장년층 인천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수준높은 음악도시 인천의 수준을 알렸다.

- 일시 : 2024년 10월 13일

- 장소 : 월미도야외공연장 갈매기홀

2024년 제11회 아름다운 인천실현 다문화예술제

재외동포청과 국제공연이 위치한 국제도시 인천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같이 모여서 잘사는 예술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과거 대한민국 아픔을 기억하고 현재 전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의 평화를 기원하며 ‘전쟁 평화 화합’를 주제로 한 인천연예예술인협회의 인천드림팝스 오케스트라와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예술과 대한민국의 퓨전국악 노래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인천 다문화 간 탤런트 대회와 먹거리 및 문화체험부스 운영 등 예술로서 인천시민에게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효과와 거리감을 해소하는데 일조하는 공연

- 일시 : 2024년 10월 19일

- 장소 : 인천대공원 야외음악당

2024년 제5회 에이블과 함께하는 거북이 가요제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천 최초 가요제로서 5회째를 맞이한 가요제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발달장애인만이 참여할 수 있는 가요제로 올해는 “Step By Step”라는 주제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한걸음 한걸음 발전한다는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이 기획당시부터 참여함으로서 함께 만들어가며 주인의식으로 출발된 사업이며 비장애인 인천시민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음악도시 인천광역시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거점도시가 되는데 기반을 다지는 사업임.

- 일시 : 2024년 8월 31일

- 장소 : 수봉문화회관 야외공연장

2024년 제5회 소통과 어울림의 공간 에이블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하고 전문예술인들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지는 공간 사업으로 인천연예예술인협회와 에이블문화장애인협회가 함께 공간을 만들어 발달장애인과 부모님으로 구성된 팀이 2024년 인천장애인합창단에서 수상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외에도 발달장애인들의 재능을 발굴하기 위해 뮤지컬 및 클래식 악기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향유기회제공과 장애인 인식개선효과를 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일시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장소 : 에이블 스튜디오

2024년 제3회 시끌시끌 거북이 음악회

장애인의 문화 향유 평등과 보장을 위해 돌발 행동이 많은 발달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의 다양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리어프리존을 운영하였으며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과 가수 여수진/하진우 무대 장애인 보컬그룹팀 파란북극성 장애인 합창단 등 다양한 무대와 체험부스 운영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발달장애인의 주인공이 되는 직접 공연에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으로 기획되었다.



- 일시 : 2024년 10월 20일

- 장소 :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2024년 제2회 인천 시민가요제
참가자 모집**

2회째를 맞이한 인천 시민가요제는 인천시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인천에 거주하거나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으며 10개군 구를 5개권역으로 나누어 예선을 통해 선발된 8명의 참가자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루었으며 가수 박서진과 인천 예술인들이 무대로 꾸며지며 유튜브 실시간 방송 등 다양한 기획으로 가요제의 수준이 발전해나가는 사업이다.

- 일시 : 2024년 10월 18일

- 장소 : 인천대공원 야외음악당(미정)

2024년 황금토끼 O.S.T 음악회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과 인천의 전문예술인들의 콜라보 무대로 기획되었으며 영화/드라마/뮤지컬 O.S.T 컨텐츠를 해설/영상과 함께 인천시민에게 선사할 계획이다.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고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향후 확대하고 발전할 계획이다.

- 일시 : 2024년 8월 24일

- 장소 :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2024년 대중예술인 행정지원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과 중장년층 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술인들이 행정과 정보에 미숙함에 도와주기 위해 사무국에서 상담 및 절차의 진행/대행을 도와주고 있으며 회원단체는 회원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 아래 2024년에는 약 30여명의 예술인활동증명 신청과 예술활동지원금 10명(각 300만원)이 선정지원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어 예술활동에 동기부여를 하였으며 네이버 밴드운영 회원수의 증가와 예술인활동증명 및 지원제도의 홍보와 지원을 하여 본 단체의 위상에 기여하였다.

- 일시 : 2024년 1월 1일 ~ 12월 30일

- 장소 : 인천연예예술인협회 사무국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Korean Movie Association



Dreams Come True
영화감독을 향한 첫 걸음! 꿈에 도전하세요.

- 단편영화제작 지원
- 영상촬영지원



2024 영화 아카데미교실 개강

8회차 영화아카데미교실 개강!

영화감독을 향한 첫걸음. 영상제작 전과정.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시나리오, 연출, 스토리구성, 촬영 현장체험, 연기, 영상기법, 실전 교육을 받고자하는 학생, 일반인들에게 영화와 영상미디어 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 영상문화 콘텐츠를 구축, 영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작품을 만들고 향유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전문성과 영상장비 지원이 수월한 영화인협회에서 영화인 양성과 우수한 단편영화제작을 지원하므로 미래의 영화감독을 꿈꾸는 이들에게 기회의 장이 되고자하는 영화아카데미교실이다.

- 일시 : 2023. 5. 4. ~ 매주 토요일 교육

- 접수 및 문의 : Tel. 032-866-6665

cafe.daum.net/im-pad에서 신청서 다운 후
E-mail. vent0603@naver.com으로 접수.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제8회 미추홀필름페스티벌

- 인천을 상징하는 경쟁 단편 영화제를 개최하여 영화와 영상미디어의 새지평을 마련하는 영상문화 콘텐츠구축과 인천문화 알리기
-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유능한 인천의 젊은 영화인들의 축제 마당 마련
- 인천 미추홀 필름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문화도시 인천시의 위상 제고

**작품
요강**

작품주제 : 자유
참가대상 : 청소년 및 대학생, 일반인
참가부문 : 2023년 3월이후 제작된 단편영화
시간제한 : 20분이내 작품
작품접수 : 2024년 7월20일~9월10일
작품신청서 : cafe.daum.net/im-pa에서 다운로드
작품접수처 : (우22166) 인천 미추홀구 수봉안길78
수봉문화회관 내 인천영화인협회

접수문의 : 032-866-6665 *Email : vent0603@naver.com으로 접수도 가능



(사)한국음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The Music Association of Korea

제43회 전국학생 음악경연대회



– 일시 2024년 4월 20일 토요일

- 장소 연수아트홀
- 주최 · 주관 (사)한국음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발굴하기 위해 권위있는 심사위원진을 섭외하여 아이들에게 무대경험을 키워 주어 연주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또한 단기적인 혜택이 아닌 아티스트로써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입상자 연주회 참가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전문 예술가로써 성장되게 한다.

인천시민들의 밤마실 콘서트

– 일시 2024년 5월 13일 월요일

- 장소 청라호수공원 야외음악당
- 주최 · 주관 (사)한국음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후원 인천광역시

늦은 저녁 산책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밤마실 콘서트를 선보여 서늘한 늦 봄 날씨에 맞는 음악을 들으며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3 인천음악제



– 일시 2024년 5월 12일 일요일

- 장소 송도 트라이보울
- 주최 · 주관 (사)한국음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후원 인천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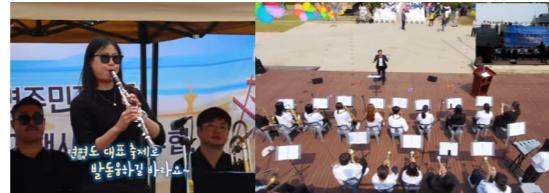
전국학생 음악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인재를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여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하여 음악적 영재들의 음악성을 감상할 수 있다.



(사)한국음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④ 찾아가는 섬마을 1인 1악기수업 및 음악회

- 일시 2024년 5월 31일 ~ 6월 2일
- 장소 연평초·중·고등학교, 연평도 메인무대
- 주최 · 주관 연평초중고, 연평사랑,
(사)한국음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이동이 힘든 섬마을 학생들과 도민들을 위해 직접 섬으로 찾아가 악기다루는 법, 합주방법 등 학생들에게 방과후에 악기를 통해 문화예술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서 지역 학생이 악기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이를 통해 고향을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사)한국음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④ 2024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

- 일시 2024년 8월 ~ 12월 (하반기)
- 주최 · 주관 인천시교육청, (사)한국음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연주단체 웨스트 앙상블



찾아가는 음악회 등 장르와 편성에 제한 없이 관객에게 맞추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어린이들부터 초, 중, 고등학교 청소년은 물론 저학년 친구들과 함께 등교하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즐겁게 감상할 수 있다.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기회를 주어 학업으로 지쳐있는 마음이 행복해지고 친구들과 함께 감상하며 교우관계를 돋독히 하는 소중한 시간을 선물한다.

④ 2024 인천음악제

인천시의 음악인들과 인천시민을 화합의 자리로 이끌며 연합 오케스트라와 다양 한 앙상블, 대중들이 사랑하는 팝 콘서트, 연합관악단의 공연으로 최대의 음악 공연으로 성장시켜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문화 의식 수준을 높여 인천 시민전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 축제로 만든다.

- 주최 · 주관 (사)한국음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후원 인천광역시
- 개막연주 6월 07일 (금) 17:00 | 월미공원 갈매기홀
- 관악의 밤 6월 08일 (토) 17:00 | 송도 타임스페이스 광장
- 앙상블의 밤 6월 15일 (토) 17:00 |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앞 무대
- 팝 콘서트 6월 28일 (금) 18:00 | 월미공원 학공연장



iH 인천도시공사와 함께하는 행복찾음 문화행사

한국인이 가장 즐거워하고 감동받는 대중가요 중 트로트를 메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어르신들이 즐겁고 젊은이들에겐 유행가로써 즐겁고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공연. 도심 속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신나는 공연으로, 음악의 다양한 장르(무용, 악기, 노래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민들에게 심적 안정과 마음치유할 수 있다.

- 일시 2024년 4월 ~ 11월 총 7회
- 장소 수봉공원, 구월체육시설, 대이작도, 연수시영아파트
선학시영아파트, 자월도, 인천도시공사 본관
- 주최 · 주관 (사)한국음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④ 제46회 전국학생 음악경연대회

- 일시 2024년 9월 예정
- 장소 수봉문화회관
- 주최 · 주관 (사)한국음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발굴하기 위해 권위있는 심사위원진을 섭외하여 아이들에게 무대경험을 키워주어 연주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또한 단기적인 혜택이 아닌 아티스트로써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입상자 연주회 참가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전문 예술가로써 성장되게 한다.

④ 2024 청소년 Wind Festival

- 일시 2024년 10월 예정
- 장소 인천지역
- 주최 · 주관 (사)한국음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후원 인천광역시, 인천예총

현재 인천 전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원드 오케스트라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기량을 선보인다. 선의의 경쟁과 함께 그 동안 갖고 낚은 시간에 대한 결실을 맺는 자리로 인천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보람과 성취감을 선물 할 뜻 깊은 자리이다. 오랜 세월 침체되어 있던 인천의 청소년 관악단의 위상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 전 지역에 학교 원드 오케스트라에게 단독 공연과 더불어 하나로 단결된 연합 관악단 공연 퍼레이드를 열어 하나로 단결된 연합 관악 공연을 통해 인천 시민으로서의 자금심을 갖게 한다.

푸른 모기

/ 김영승

속 비치는 가볍고 얇은
푸른 옷 입고 푸른 풀숲에서
며칠 머무르다
가냘픈 제 몸 허공중에 떠받칠
몇 방울 피를 뺄기 위해
이제 어둠 속에 불빛을 향해 날아온
아직은 청정한 영혼의 부유 같은
밤의 세포.

선악과 성속을 초월하여
악마가 되거나 천사가 되거나.

—《문화일보》(1992년 7월 15일 수요일자), 시집『몸 하나의 사랑』(미학사, 1994) 중에서

시인 김영승



1959년 인천 출생

제물포고등학교를 거쳐 1983년 성균과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계간 '세계의 문학' 가을호에 '반성.序' 외 3편의 시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반성', '권태', '무소유보다 더 찬란한 극빈', '화창' 등과 에세이집 '오늘 하루의 죽음'이 있다.
2002년 현대시작품상, 2010년 불교문예상, 2011년 인천시 문학상 수상했다.